

18세기 세미나 발제문 > 2007. 5. 31(木)

Lynn A. Struve (ed.) *The Qing Formation in World-Historical Tim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Foreword: *Richard von Glahn*

- 청은 그동안 중국-중심적 역사라는 후기-제국 패러다임(late-imperial paradigm)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들은 만주정권이라는 청 왕조의 독특성에 주목하여 청 왕조의 형성을 ‘초기 근대성(early modernity)’의 개념 하에서 유라시아를 거스르는 정치, 문화적 통합 유형에 대해 바라보고자 한다. 즉, 청 왕조의 형성을 초기-근대 프레임워크 분석 안에서 이른바 ‘화약제국(gunpowder empire)’이라고 불리우는 오트만, 무굴, 러시아 등과 같은 범주에 놓고 중앙 유라시안 초원을 매개로 하는 세계적인 상호작용(global interaction)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Introduction: *Lynn A. Struve*

- 필자는 청의 도래(coming)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 역사의 주요한 발전을 구성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Spier의 견해를 빌려와서 청의 형성이 아대륙 정권 변화(subcontinental regime transformation)의 재 시스템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별(individual), 사회(social), 생태(ecological) 3가지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What Times Is Qing?*: 필자는 청의 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언급한다. 예컨대 아날학파는 16-7세기 중국이 단순한 왕조전환이 아닌 초기 근대세계에 있어서의 유럽의 르네상스에 비유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경험하였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을 고립된 것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새로운 연구들은 중국과 중앙유라시아, 동남아와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절대군주제 왕조’와 비견될 수 있는 화약 제국의 하나로 명, 청 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청 형성의 초기-근대성(early-modernity)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장과 유사한 진술들을 언급한다.<sup>1)</sup> 예컨대 명말-청 중엽의 시기는 ‘전근대 후기(late premodern)’나 ‘전산업화 후기(late preindustrial)’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던 것이다. part I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군사적 팽창과 군사혁명 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초기-근대성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정치, 문화, 경제 변형의 탐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최근 많은 연구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PART I: SITINGS IN EURASIAN TIME

### 1. The Qing Empire in Eurasian Time and Space: Lessons from the Galdan Campaigns: *Peter C. Perdue*

1) 초기-근대성적 특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partII에서 상술되고 있어 분량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 필자는 17-8세기 중앙아시아를 포함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청 제국의 팽창에 주목한다. 즉, 강희제의 친정과 몽고 지도자 갈단의 죽음에 대해 기존의 민족주의자 관점이 17-8세기 유라시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제국의 팽창과 식민지화를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필자에 따르면 주요 분석 수준은 1. 세계(global): 2. 제국/국가(imperial/state), 3. 사회/지역/ 커뮤니티(social/regional/community), 4. 개인(personal)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필자는 여기에서 강희제가 갈단에 대항하여 1690-97년에 벌인 17세기 서북 지역 정복전쟁을 개별, 구조의 rapprochement에 의거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세계사에 있어서의 청 제국의 위치가 우리가 그 영역적 팽창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Contingencies of the Galdan Wars(갈단 전쟁의 우연성)*: 청 왕조가 대만의 정씨 일가, 삼번의 난 등과 대치하고 있는 사이 서부 몽고의 준가르족은 서부 몽고, 투르키스탄, 티벳에 강력한 자치 국가를 건설하였다. 한편 티벳에서 성장한 갈단은 칸의 지위를 계승하였던 그의 장형이 사망하고 그의 동생이 암살되는 틈을 타 달라이 라마의 지원으로 귀환하여 칸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청, 준가르, 러시아 3 제국이 대치하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네르친스크 조약 역시 청이 러시아의 중립을 원했기 때문에 체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갈단은 청의 강희제를 그의 라이벌로 인식하고 신복을 거부하며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준가르와 청간의 충돌은 불가피 하였다. 그들간의 최초의 충돌은 1690년에 있었는데 비록 청군이 갈단에게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주둔군에 대한 보급부족 등으로 인해 너무나 지친 청군은 달라이 라마가 파견한 대표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갈단 역시 다시는 청의 국경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귀환하였다. 그러나 6년 후 충돌이 재연되었다. 이전까지 중국 역사에서 한, 당 두 제국도 이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강희제는 준가르 정복을 선왕조들의 업적을 능가할 수 있는 청의 역사적 성취로 인식하고 제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친정(親征)에 나서게 되었다. 갈단은 초원에서 자치 몽고국가와 청 제국 간에 안정적인 구분을 목표로 하면서 자신을 칭기스칸이 아닌 알탄 칸의 계보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알탄 칸은 달라이 라마가 티벳 불교 신앙의 수호자로 명명한 인물로 갈단은 청에 대한 형식적인 복속을 대가로 자치 몽고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갈단은 차오모도에서 친정한 강희제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일부 부족을 이끌고 알타이 산중에 있었다. 1697년 청군이 그를 다시 공격하여 그의 조카와 일급 참모가 청군에게 투항하였음에도 갈단은 아사(餓死)직전의 300명을 거느린 가운데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다. 청의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갈단이 자살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필자는 갈단이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nscribing the Campaigns into History(역사 속으로의 출정의 기입)*: 청 관리들과 황제가 갈단 정복이 하늘의 의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결국 실의에 빠진 갈단이 자살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갈단 사후에도 갈단의 후계자들과 준가르 국가들은 17세기보다 더 큰 국가를 건설하여 건륭제가 이들을 소탕하기 전 까지 60여년을 더 존속하였다. 결국 청 제국은 갈단 정복을 하늘의 뜻을 거스른 야만부족에 대한 토벌이자 위대한 2개의 승리로 명영략제 등 이전 중국왕조들과 동일선상에 놓아 이를 기록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Later Retellings(나중의 개작)*: 청의 역사는 갈단 정복을 보다 구체화시켜 재구성했다. 즉,

초모도(ja'un-Modu)전투가 명 영락제의 1410년 친정 승리의 장소와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하늘의 뜻을 거스른 갈단의 비참한 최후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후의 중국 역사 역시 서부 국경을 침범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갈단의 반란으로 이 시기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몽고인들 간의 본질적인 조화를 경시한 ‘분열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몽고 역사가들은 이를 달리 보고 있는데, 즉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청 제국에 대항한 통일된 저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몽고, 중국은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들만의 국가신화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China in World History(세계사에 있어서의 중국)*: 필자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은 갈단의 죽음이라는 협소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17-8세기 유라시안 공간에 위치한 청 제국 시기의 팽창을 경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내외에서 도전받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는 중국이 다른 제국들과 닮았다(resemble)는 평가를 거부하면서 청의 독특한 특질을 강조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청 제국의 지배자들은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통치와 국경 방어를 위한 거대 군사력을 유지했고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들였으며 지방 엘리트들의 복종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1997년 빅터 리버만(Victor Liberman)의 연구에서는 초기 근대 시기 유라시아에서의 제국의 팽창과 문화적 통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군사경쟁, 상업 발전, 관료화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유럽 중심적 모델을 거부하고 대륙까지 통합시키는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공통적 트렌드를 추적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유라시아의 공통성에 주목한 분석들이 지리, 제도,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시야(scope)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몽고, 러시아, 중국은 유사한 형태로 자신들의 합법성(legitimacy)을 표현해왔다. 즉, 몽고는 무슬림이나 티벳 불교를 통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말하는 신의 은총으로, 중국은 하늘의 뜻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

## 2. The Qing Formation, the Mongol Legacy, and the “End of History” in Early Modern Central Eurasia: *James A. Millward*

-필자는 15세기 초의 몽고제국의 해체 이후의 중앙, 내륙 아시아(central, inner Asia)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재제국화(reimperialization)”와 청의 형성을 연관시켜 바라보고자 한다. 필자의 문제의식 중 하나는 청을 어떻게 세계 역사에 맞출 수 있을까? 혹은 세계 역사를 어떻게 중국의 역사와 부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트만 제국이 터키 이상인 것 처럼, 청 제국 역시 중국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내륙 아시아에도 걸쳐있던 제국이었던 것이다.

*The Return of the Torghuds*: 1771년 4월 서몽고족 오이라트의 후예로 강성해진 준가르 부족을 피해 17세기 초 서진했었던 티벳 불교도인 돌궐 유목민들(Torghuds)이 청의 영역인 이리 지역(Yili region)에 정착하고자 했다. 그러나 건륭제는 모든 몽고부족들이 청의 신하가 되었다며 강희제의 선례를 좇아 이들을 처리하고자 했다. 일찌기 순치제 시절 5대 달라이 라마가 청의 수도인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판첸 라마의 방문을 Torghuds, 몽골 정책과 연계시키고자 했다.<sup>2)</sup>

2) 청은 티벳 불교를 믿는 몽고족들의 자립 움직임의 배후에 달라이 라마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판첸 라마와 제휴하여 포탈라 궁으로 진입하여 달라이 라마의 독재권을 박탈하고 명목상의 통치권을 판첸 라마에게 주었

*The Context of the Qing*: 청은 다양한 인종들의 통합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건륭제는 어떻게 중국뿐만 아니라 내륙 아시아를 포함하면서도 청을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내륙 아시아는 몽고제국 해체 이후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청을 포함하여 이들은 1. 특히 칭기즈칸으로부터 비롯된 정통성의 몽골 시스템 내에서 특히 군사부문에 있어서 몽고제국의 제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2. 티벳과 같은 강력한 종교 질서와 연합하고 있었고, 3. 농경 경제에 대한 조세를 시도하면서 내륙 아시아에서 농경, 도시건설과 결합한 군사 행정 조직체, 기술들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CHINGGISIDS AND SUFIS IN CENTRAL ASIA: 칭기즈칸 사후 내륙아시아에서 몇몇 투르크, 몽골 부족들이 최고의 권위(supremacy)를 놓고 경쟁하였으며 최초의 후기-몽고 재제국화를 달성했던 것이 티무르였다. 이들은 이른바 황금씨족(Golden Hordons)의 이름으로 경쟁하였다. 16세기경 티무르의 본보기를 따르고자 하는 몇몇 우즈베크 통치자들이 대부분 농민들이었던 백성들을 독려하여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했으며 16세기 말 경에는 상업적 팽창이 나타났다. 한편 1500-800년경 유라시아에서는 이슬람 수피교도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WESTERN AND EASTERN MONGOLS: 몽골족들 사이에서는 칭기즈칸을 따라 후기제국 시기 내에서 재제국화를 꿈꾸었던 몇몇 시도들이 있었다. 우선 첫 번째 시도는 토목의 변을 일으켰던 오이라트의 에센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제국은 그의 사후 1454년 해체되었다. 보다 성공적인 사례는 다얀 칸과 그의 손자인 알탄 칸의 경우였다. 특히 16세기의 통치자였던 알탄 칸은 1571년 명과 교섭을 체결하여 정치적인 신복의 대가로 정기시장을 여는데 성공했다. 또한 티벳 불교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몽골족들에게 티벳 불교를 장려하는 대신 티벳 불교의 수호자이며 쿠빌라이 칸의 환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권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알탄 칸은 농업, 상업을 증진시키고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종교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

THE ZUNGHARS: 한편 내륙아시아에는 17-8세기 준가르 부족이 출현하였다. 갈단의 시기 준가르는 내륙 아시아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7세기 말-18세기 중반에 동 투르키스탄을 부속시켰으며 동쪽으로 팽창하였다. 갈단 사후에도 이들은 17세기 중반-18세기 중반까지 중국, 러시아, 티벳, 서 투르키스탄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THE DGE LUGS PA AND ITS MILITARY PATRONS

##### *The Qing and Its Central Asian Neighbors*

### 3. Did Guns Matter? Firearms and the Qing Formation: *Nicola Di Cosmo*

- 니콜라 디 코스모는 청의 정복을 16-8세기 유라시아의 군사혁명과 화약제국과 동일시

는데, 이후에도 역대 관첸 라마들은 중국과 결탁하여 왔다.

한다. 그에 따르면 서구로부터의 최첨단 화기 기술(firearm technology)의 도입이 거대하고 이미 진보된 명을 전환시키기보다는 보다 작은 청에게 급속히 보급되어 초기 청의 구조와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The Early Introduction of Advanced Firearms to China*

*Initial Ineffectiveness of Chinese Artillery Against the Manchus*

*Ming Efforts to Increase Their Western Artillery Arsenal*

*Hong Taiji's Artillery: Technology, Organization, and Tactical Uses*

*Jesuit Guns and the Consolidation of Qing Rule*

*The "Military Revolution" and the Qing Formation*

#### **4. Contingent Connections: Fujian, the Empire, and the Early Modern World:**

***John E. Willis, Jr.***

- 필자는 명-청 교체 전환기의 제국의 중심과 독립 국가 건설의 능력이 있었던 지역들간의 관계를 특히 해상무역 지역이었던 복건 성(Fujian Province)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필자의 지적에 따르면 제국의 단위 내에서 단단하였으며, 순종적이었던 이 복건 성이 내부에서 처럼 외부로도 자신을 지향(orient)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What, in the World, Is a Province?

IN GLOBAL TIME?

IN MING-QING TIME?

*Provincial Interludes: Alternatives and Their Instabilities*

A CLEAR VIEW OUT TO SEA AND HINTS OF A REGIONAL PUBLIC SPHERE

A SEPARATE SOUTHERN REGIME?

A LOCAL-HISTORY INTERLUDE: SOMEHOW THE FOUNDATIONS HOLD

*More Provincial Interludes*

LOOSER CONNECTIONS WITH THE CENTER?

COMPETENCE AND COURT CONNECTIONS: TONG GUOQI TO THE RESCUE

REGIONAL FIEFDOM? ZHAOFU AND FOUR KINDS OF MINISTERS  
END OF THE INTERLUDES: SECURELY PROVINCIAL AGAIN

*Consequences for China's Relations with the Maritime World*